# 가족 스트레스, 가족 체제 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 Family Stress, Family System Types and Family Well-being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정 옥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Hyosung Catholic Univ
*Prof.* : Jung Ok Kim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 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 multivariate model of the effect of life events and transitions, intrafamily strain, marital adjustment, and appraisal on family well-being across the family system types. Data from 356 families were analysed SAS program.

The result show that life events had no direct on family well-being but they intensified intrafamily strain. Family strain, in turn, negatively affected marital adjustment in flexible-connected families and structured-seperated families and perceived well-being in flexible-seperared, flexible-connected and structured-seperated families. Marital adjust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well-being in flexible-connected families. In flexible-connected families, marital adjustment seems to buffer the effect of intrafamily strain on well-being. The result also suggested that a combination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level may explain differencies in the family's response to demands.

* 본 논문은 1993년도 효성여자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가족생활의 모든면에서 가속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을 둘러싼 가족내외 환경의 변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기능적으로 잘 대처하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수행능력을 갖게 하므로서 개인의 생존과 복지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이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족의 위기 및 가족의 해체상태에까지도 이르게 된다(McCubbin, 1979). 스트레스는 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건강상의 문제이고 일의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며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의 통합과 재생산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은 결혼에 의하여 형성·확립되어, 축소, 해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다. 즉 가족은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사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변화는 성장의 매체수단이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통로이기도 하다(Rice and Tuker, 1986). 어떤 가족은 변화를 잘 관리하여 고통없이 변화되는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어떤 가족은 정상적인 발달적 사건의 변화까지도 심한 스트레스로 느껴지기도 한다(McCubbin, Cauble and Patterson, 1982).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의 종류를 경험하여도 스트레스정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다른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어떤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반면에 다른 가족은 보다 위기경향적인 가족이 될까? 가족스트레스 이론의 발달을 고찰해 본 결과 스트레스와 가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우산개념(a set of umbrella concept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원(규범적 전이, 비규범적 전이, 요구누적), 스트레스 결과(가족붕괴, 적응), 스트레스와 그 결과간의 중재요소로서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한 평가, 가족의 내·외적 자원으로 그 개념을 설명해 볼 수 있다. 가족체제의 자원으로서의 부부적응은 요구의 누적(스트레스적 사건, 전이, 가족내긴장)으로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족재생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Burr, 1973 : Hansen, 1965). 그리고 대응자원으로서의 상황에 대한 인지력(sense of coherence)은 요구가 누적되어 스트레스 적응의 결과로서의 가족복지감의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다(Lavee, McCubbin, Olson, 1987).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여러 사회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노인, 장애인등 개인대상으로 구호사업, 시설사업위주로 실시해 왔으므로, 그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가족복지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정상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며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이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유영주, 1985). 스트레스 적응의 결과로서의 복지감은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족자원으로서의 부부적응의 변수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발달적 전이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사족자원의 특성이 중요한 자원이고 가족체제유형(상호작용형태)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반응의 과정을 형성한다(Lavee and Olson, 1991). 가족체제유형은 내·외적 자원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도 상호작용한다(Hansen and Johnson, 1979 ; McCubbin and Thompson, 1986 ; Olson and McCubbin,1982). 그리고 오늘날 한국가족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 내지는 스트레스의 어려움이 개인, 가족 나아가 가족의 안정성에 까지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중·고등·대학교에 재학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체제유형을 분류하여 각 가족체제유형에서 스트레스요인을 확인하고 대응력으로서의 가족자원(부부적응, 상황에 대한 인지력), 적응결과로서의 차원인 가족의 복지와 상호관련성을 FAAR모델(McCubbin and Patterson, 1983) 이론과 Circumplex Model(Olson,

Sprenkle and Russell, 1979)로 접근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결과로서의 건강한 가정형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스트레스적인 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 결혼적응, 상황인지력, 가족복지의 변인들은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규범적인 전이가 가족내의 긴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가족긴장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결혼적응(가족자원)과 결합감(상황에 대한 지각)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 Ⅱ. 이론적 배경

### 1. 가족스트레스 이론[1)]

본 연구의 이론적인 모델은 McCubbin과 Patterson (1983)이 개발한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FAAR)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위기후의 가족적응 과정을 설명하도록 Hill(1949)의 ABC-X을 재정의하고 확장한 것이다. FAAR모델은 변화에 대한 가족 적응을 요구의 누적에 대한 기능과 가족의 적응적인 자원,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가족의 지각과 평가로 설명한다.

### 2. 가족체제 유형

부부 · 가족체제에 대한 순환모델은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1979년 Family Process (Olson Sprenkle, Russell)에 최초로 기술되었다. 가족학 분야에서 수많은 개념들이 가족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에 가족학자들이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과다한 설명적인 변수들을 축약하여 몇가지의 개념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관심을 가져왔다. 50여개의 개념을 축약하여서 Olson, Sprenkle 그리고 Russell(1979)이 3가지의 측면에서 즉 응집성, 적응성, 가족상호작용의 측면을 설명했다. 부부 · 가족체제의 순환모델은 가족생활의 2가지의 중심개념 즉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조직화되어 왔다. 커뮤니케이션은 순환모델의 중심개념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적응성과 응집성의 수준과 가족유형들간에 가족의 동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으로 고려되었다.

응집성은 가족성원 상호간에 갖게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Olson, 1989). 측정내용은 가족의 외부환경과 하위체제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시간의 허용정도,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활동의 보장에 대한 정도로 측정된다.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유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속박(enmeshed)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의 요구에 반응하여 부부 · 가족체제가 세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측정내용은 가족원의 자기주장, 리더쉽,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가족협상 유형, 역할관계와 분담, 가족규칙의 융통성 등이다(Olson, 1986). 변화의 정도수준에 따라 경직(rigid), 구조적(structured), 유연적(flexible), 혼돈(chaotic)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가족체제는 응집성이 극도로 낮은 가족체제(disengagement)에서 극히 높은 가족체제(enmeshment)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적응성이 극히 낮은(rigidity)쪽에서 지극히 높은(chaotic)체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간 정도인 가족(balanced system)이 두 영역의 수준이 낮거나 높은 가족(extreme system)보다 더 잘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제가족에 촛점을 맞추어 왔고 균형가족이 극단가족보다 더 잘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Olson, 1986). 그러나 정상

1) 김정옥 · 박순희, 가족스트레스 관리,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가족 즉 비임상적 가족에서는 실로 극단가족의 수는 아주 소규모이어서 순환적인 측면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Olson, 1989). 따라서 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원을 근거로 하여 정상가족을 4분면의 유형(quadrant typological approach : Lavee, 1985 ; Olson, Lavee, and McCubbin, 1988) 네 가지의 가족체제 유형으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집성과 적응성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 조합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유형(LL가족 : 구조적 · 분리가족), 응집성이 낮고 적응성이 높은 가족(LH가족 : 유연적 · 분리가족), 응집성이 높고 적응성이 낮은 가족(HL가족 : 구조적 · 연결가족), 응집성,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HH가족 : 유연적 · 연결가족)의 네 가지 가족체제유형으로 분류된다.

### 3. 가족체제유형, 가족스트레스, 가족복지와의 관계

가족체제의 순환모델과 가족스트레스 모델이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왔을지라도 순환모델의 두 측면-적응성과 응집성을-스트레스에 대한 가족반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자원이라고 가족스트레스 이론가들은 확인해 왔다(Angell, 1936 ; Hill, 1949 ; Burr, 1973).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붕괴(위기)의 측면과 적응의 두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다(McCubbin and Patterson, 1983).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변화에 직면하여 어떤 가족은 보다 취약하여 가족의 기능면에서 보다 분열적인 것과 성원간의 갈등을 더 경험하고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더 겪고 가족간의 긴장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더 적응적이어서 붕괴상태에서 보다 잘 회복할 수 있다.

보다 응집력이 있는 가족(연결가족)이 덜 응집적이고 분리된 가족보다 가족자원이 더 튼튼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자원을 가지고 있다(Olson, 1986). 즉 응집력있는 가족이 덜 취약하고 보다 적응적이라고 기대되어진다.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보다 구조적인 것이 가족을 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일단 붕괴된 후의 위기에서 회복되는 것은 유연성이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Hansen과 Johnson(1979)은 지적하고있다.

응집성과 적응성 그리고,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파악한 최근의 한국가정의 자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최연실, 1992 ; 김수연 · 김득성, 1993 ; 박경숙, 1993 ; 전귀연 · 최보가, 1993 ; 안선영, 1994)에서도 직선적인 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응집성만이 직선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보고(민하영, 1991)도 있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의 응집력, 적응성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라고 지적되고 있다(한상분, 1992). Olson, Lavee 그리고 McCubbin(1988)은 4가지 형태의 가족체제유형에 따른 요구의 누적에 대한 반응을 검토했다. 모든 가족유형이 요구가 누적되는 것은 유사한 반면 가족체제유형들간에 가족간의 기능, 가족복지에 대한 지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가족체제유형들간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가족의 응집수준과 응집과 적응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356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후 적도의 수정과 보완을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해당학교 교사를 통하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학생에게 배포하여 어머니에게 전달한 후 어머니가 직접 기입하여 다시 학생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빈도(백분율) |
|---|---|---|
| 연 령 | 40 - 44세 | 42(11.8) |
| | 45 - 49세 | 216(60.7) |
| | 50 - 54세 | 98(27.5) |
| 소득수준 | 110만원 미만 | 67(18.8) |
| | 110 ~ 150만원 미만 | 53(14.9) |
| | 150 ~ 200만원 미만 | 75(21.1) |
| | 200 ~ 250만원 미만 | 88(24.7) |
| | 250만원 이상 | 73(20.5) |
| 소득만족도 | 만 족 | 162(46.8) |
| | 불 만 족 | 184(53.2) |
| 아내의 교육수준 | 국 졸 | 36(10.1) |
| | 중 졸 | 92(26.0) |
| | 고 졸 | 143(40.0) |
| | 대학중퇴 및 전문대 졸 | 21( 6.0) |
| | 대졸 및 대학원 이상 | 63(17.7) |
| 남편의 교육수준 | 국 졸 | 16( 4.5) |
| | 중 졸 | 46(13.0) |
| | 고 졸 | 141(39.8) |
| | 대학중퇴 및 전문대 졸 | 29( 8.2) |
| | 대졸 및 대학원 이상 | 122(24.5) |
| 가족형태 | 핵 가 족 | 309(86.7) |
| | 확 대 가 족 | 40(11.3) |
| | 기 타 | 7( 2.0) |
| 종 교 | 유 | 261(73.5) |
| | 무 | 94(26.5) |

## 2. 측정도구의 구성

1) 가족체제유형

가족체제유형을 분류하는 측정도구는 FACES Ⅲ (Olson, Portner and Lavee, 1985)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과 적응성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alpha$계수를 추정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FACES Ⅲ에서 얻어진 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를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네 가지 가족체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연적-분리가족(Type Ⅰ : n=57)은 적응성 척도에서 평균 이상, 응집성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가족이다. 유연적-연결가족(Type Ⅱ : n=131)은 적응성, 응집성척도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가족이다. 구조적-분리가족(Type Ⅲ : n=126)은 적응성, 응집성척도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가족이다. 구조적-연결가족(Type Ⅳ : n=42)은 적응성 척도에서 평균 이하, 응집성 척도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얻은 가족이다.

2)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은 McCubbin팀의 A-FILE(1981)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이 경험 할 수 있는 비규범적 사건 즉 상실과 질병의 경험 총수를 나타낸다. 이들 사건의 내용으로는 자녀, 부모, 가까운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의 사망, 그리고 중병, 상해, 또는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의 수감의 내용을 포함한다.

규범적 전이 척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규범적인 변화와 전이의 총수를 말한다. 가족원이 집에 돌아 오는 것, 새사람이 집에 들어오는것, 배우자가 직업을 그만 두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사업을 새로 시작, 또는 학업을 시작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내 긴장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었던 가족의 상호작용과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변화의 측정이다. 개인간의 긴장과 가족성원간의 갈등, 그리고 역할 긴장의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84 였다.

3) 부부 적응

가족체제의 차원으로서 부부적응은 ENRICH(Olson, Fournier, and Druckman, 198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잠정적인 문제영역과 관계의 힘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인성 문제, 커뮤니케이션, 갈

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적관계, 자녀와 결혼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 관한 8개의 하부영역을 포함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82 였다.

4) 상황인지력

상황에 대한 지각인 대응자원으로서 상황인지력의 측정도구는 F - COPES : Family Coping Strategies (McCubbin, Larsen, and Olson, 1982)척도에서 상황인지력 내용에 접근하는 문항 7개 항목을 선택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들에게 닥쳐올 문제는 가족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평가하는 신뢰 항목 4문항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항목 3 문항으로 척도는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5) 복 지

복지에 관한 내용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 Olson and Barnes, 1982)의 측정도구에서 11개항목을 선택하여 측정되었다. 복지의 내용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직업(일), 가족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자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가족의 재정적 복지와 이웃에 대한 만족 등이 포함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alpha$계수를 추정한 결과 .84 이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t검증, 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스트레스적 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적 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의 빈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스트레스적 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의 빈도 및 백분율

(%)

| 경험 횟수 / 사건, 전이, 긴장 | 0 | 1회 이상 |
|---|---|---|
| 사 건 | 128(36.0) | 228(64.0) |
| 전 이 | 41(11.5) | 315(88.5) |
| 긴 장 | 39(11.0) | 317(89.0) |

조사대상자중 지난 1년동안 스트레스적인 사건 즉 비규범적인 사건으로서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 친구의 사망, 중병, 상해 또는 이들의 수감등의 사건을 한번이상 경험한 집단이 64%이었다. 가족구성원의 유학, 군입대등으로 외유하였다가 집에 돌아오거나 새식구가 들어오는것, 배우자의 직업전환 및 퇴직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범적 전이를 경험한 집단은 88.5%이었으며 개인내적 긴장, 가족성원간의 갈등, 역할긴장의 증가 등 가족내 긴장을 경험한 집단은 89%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은 역할의 긴장내지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었고 성장발달에서 오는 규범적인 전이, 비규범적 전이의 순으로 경험하고 있다.

### 2. 조사대상자의 응집력, 적응력 점수

조사대상자의 응집력, 적응력 점수는 〈표 3〉과 같다. 가족성원들 서로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많은 응집성에 관련된 10문항과 가족규칙에 대한 융통성을 두고 융통적인 역할분담 및 자녀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적응력의 내용 10문항의 평균점수를 고찰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적응력보다 가족응집력이 더 높았다.

2. 가족체제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적인 사건,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 결혼적응, 상황인지력, 가족복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누

〈표 3〉 응집력, 적응력 점수

| | 최하점 | 최고점 | 평균 | 표준편차 |
|---|---|---|---|---|
| 가족응집력 | 13 | 50 | 34.089 | 6.800 |
| 가족적응력 | 12 | 41 | 26.859 | 5.385 |

적은 가족체제유형들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 즉 규범적 전이, 가족내 긴장, 결혼적응, 상황인지력, 가족복지 등의 경우 가족체제유형들간의 차이는 인정되었다.

### 3. 가족체제유형과 각변수들간의 경로계수

연구문제 2, 3, 4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간의 경로계수를 구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표 5〉, 〈표 6〉, 〈표 7〉, 〈표 8〉에 구조적 모델에 대한 경로계수가 상세히 기술되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적 사건들과 규범적 전이들은 가족체제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구조적 · 분리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유형에서는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이 가족내의 긴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구조적 · 분리가족에서는 규범적인 전이가 가족내의 긴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비규범적 사건)으로서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상실이나 질병, 상해 등이 구조적 · 분리가족 이외의 가족유형에서는 가족간의 관계의 변화(가족내 긴장)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 상황적 · 발달적인 요구에 반응하여 역할관계나 관계의 규칙을 변화하는 능력이 약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적인 발달적인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내의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연적 · 연결가족과 구조적 · 분리가족에서는 가족내의 긴장이 부부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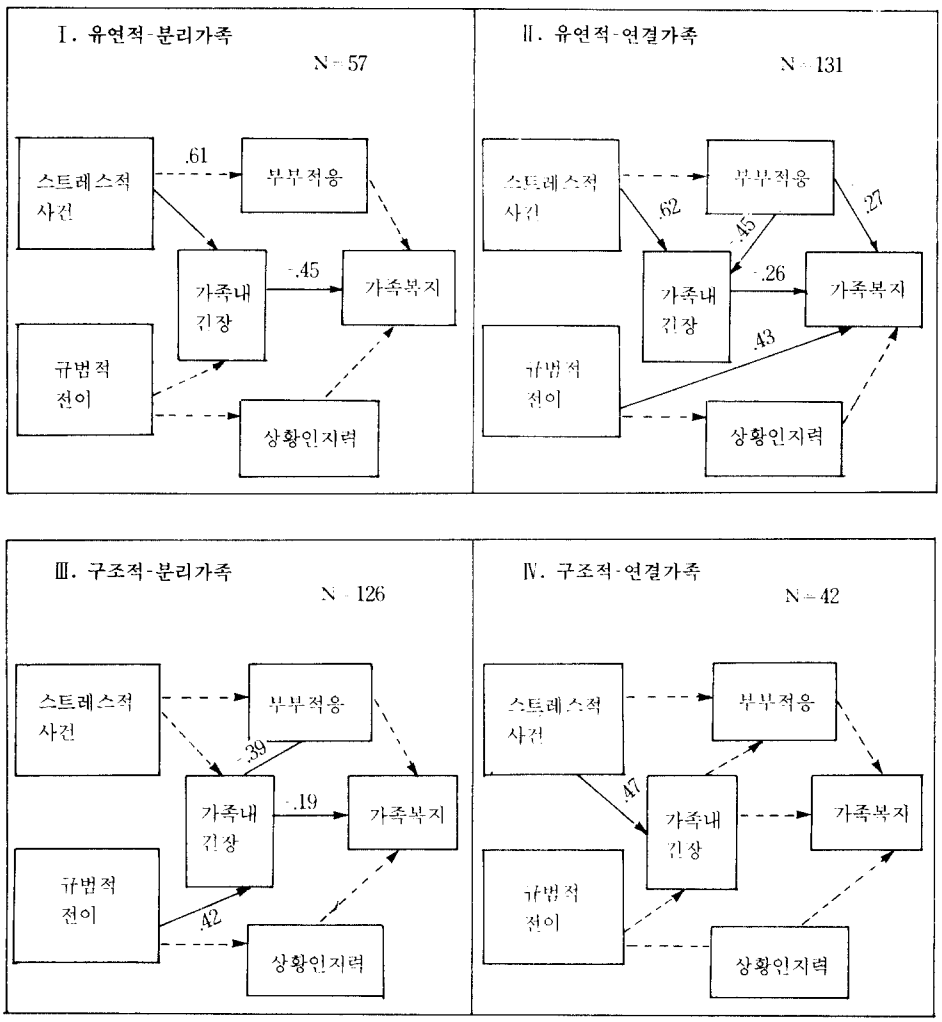
복지는 구조적 · 연결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유형(유연-분리, 유연-연결)에서 가족내의 긴장에 의해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 유연적 · 연결가족에서 부부적응이 가족복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가족복지는 부부단위의 힘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가족체제유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설명하는 Family Adjustment Adaptation Model(McCubbin and Patterson, 1983)과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측면에서 가족체제를 설명하는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Olson팀, 1979)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가 설계되었다.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스트레스이론에서 가족적응을 높여주는 중요자원으로 개념화되어 왔다(Lavee and Olson,1991). 따라서 두 개의 개념을 통합하여 분류한 가족체제유형과 스트레스에대한 반응을 검토하는 것

〈표 4〉 평균, 일원변량분석

| 변인 | 유형 I<br>유연적-분리가족 | 유형 II<br>유연적-연결가족 | 유형 III<br>구조적-분리가족 | 유형 IV<br>구조적-연결가족 | 일원<br>변량분석 |
|---|---|---|---|---|---|
| 스트레스적 사건 | 1.40 | 1.34 | 1.34 | 1.55 | 0.23 |
| 규범적전이 | 3.11 | 2.27 | 2.71 | 2.10 | 3.08* |
| 가족내긴장 | 4.39 | 3.19 | 5.19 | 3.24 | 8.57*** |
| 부부적응 | 3.26 | 3.57 | 3.15 | 3.65 | 25.99*** |
| 상황인지력 | 3.53 | 3.87 | 3.37 | 3.89 | 24.31*** |
| 가족복지 | 2.59 | 2.79 | 2.40 | 2.74 | 20.37*** |




〈그림 1〉 경로계수에 있어서의 가족체계유형간의 비교

은 스트레스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조-분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유형에서 스트레스적인 사건이 가족내의 긴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구조-분리가족에서는 규범적인 전이가 가족내 긴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내의 긴장은 가족체제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적인 변화에 따른 가족간의 역할 또는 관계의 변화에 능력이 부족하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가족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규범적인 전이에 가족내의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적인 사건(가족원의 상실, 질병 등)과 가족체제유형들간의 관계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체제유형들 간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가족내의 긴장과의 관계는 〈그림 1〉에서 지적하듯이 구조적·연결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체제유형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경험은 가족내의 긴장을 초래하는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역할수행(부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가

〈표 5〉 유연적-분리가족(유형 I)

(N=57)

| | Path Coefficients | t |
|---|---|---|
| 1. 가족내적 긴장 | | |
| 스트레스사건 | 0.607608 | 3.506*** |
| 규범적 전이 | 0.310356 | 1.652 |
| | $R^2$=0.4255 | F=19.999*** |
| 2. 부부적응 | | |
| 스트레스사건 | 0.222632 | 0.882 |
| 가족내적 긴장 | -0.252937 | -1.413 |
| 규범적 전이 | 0.126882 | 0.501 |
| | $R^2$=0.0427 | F=0.788 |
| 3. 상황인지력 | | |
| 스트레스사건 | -0.441170 | -1.032 |
| 가족내적 긴장 | 0.010191 | 0.034 |
| 규범적 전이 | 0.171680 | 0.400 |
| | $R^2$=0.0268 | F=0.486 |
| 4. 가족복지 | | |
| 스트레스사건 | 0.423532 | 1.840 |
| 가족내적 긴장 | -0.449909 | -2.781** |
| 규범적 전이 | -0.010219 | -0.046 |
| 부부적응 | 0.169204 | 1.204 |
| 상황인지력 | -0.028189 | -0.344 |
| | $R^2$=0.1949 | F=2.018 |

* P<.05, ** P<.01, *** P<.001

〈표 6〉 유연적-연결가족(유형 II)

(N=131)

| | Path Coefficients | t |
|---|---|---|
| 1. 가족내적 긴장 | | |
| 스트레스사건 | 0.620654 | 6.070*** |
| 규범적 전이 | 0.237521 | 1.814 |
| | $R^2$=0.3583 | F=35.731*** |
| 2. 부부적응 | | |
| 스트레스사건 | 0.033234 | 0.224 |
| 가족내적 긴장 | -0.446112 | -3.944*** |
| 규범적 전이 | -0.021287 | -0.125 |
| | $R^2$=0.1544 | F=7.732 |
| 3. 상황인지력 | | |
| 스트레스사건 | -0.016453 | -0.112 |
| 가족내적 긴장 | -0.110421 | -0.990 |
| 규범적 전이 | -0.008615 | -0.051 |
| | $R^2$=0.0143 | F=0.614 |
| 4. 가족복지 | | |
| 스트레스사건 | -0.171646 | -1.124 |
| 가족내적 긴장 | -0.261932 | -2.126* |
| 규범적 전이 | 0.430086 | 2.465* |
| 부부적응 | 0.271654 | 2.647** |
| 상황인지력 | -0.093097 | -0.946 |
| | $R^2$=0.2271 | F=6.073*** |

* P<.05, ** P<.01, *** P<.001

족간의 갈등(부부, 부모-자녀, 시가와의 갈등)의 증가는 가족내의 긴장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가족내의 긴장간의 인과관계는 가족스트레스 이론가들과 발달이론가들에 의해 가정되어온 사실이다. Hill(1949)은 스트레스적인 사건이 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Burr (1973) 또한 스트레스적인 사건이 가족체제를 무기력하게하고 분열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81)은 생활사건이 가족내에서 긴장감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다.

부부적응은 유연-연결, 구조-분리가족에서 가족내 긴장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응집성과 적응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개인간의 긴장은 부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척도에서 평가된 가족복지감은 모든 가족유형에서 스트레스적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내의 긴장 변수로 인한 간접적인

〈표 7〉 구조적-분리가족(유형 III)

(N=126)

| | Path Coefficients | t |
|---|---|---|
| 1. 가족내적 긴장 | | |
| 스트레스사건 | 0.183735 | 1.313 |
| 규범적 전이 | 0.422072 | 2.767** |
| | $R^2$=0.1087 | F=7.503*** |
| 2. 부부적응 | | |
| 스트레스사건 | 0.155004 | 1.213 |
| 가족내적 긴장 | -0.392861 | -4.806*** |
| 규범적 전이 | -0.080691 | -0.566 |
| | $R^2$=0.1773 | F=8.762*** |
| 4. 가족복지 | | |
| 스트레스사건 | -0.076127 | -0.775 |
| 가족내적 긴장 | -0.193188 | -2.841** |
| 규범적 전이 | -0.019572 | -0.177 |
| 부부적응 | 0.124534 | 1.716 |
| 상황인지력 | 0.014588 | 0.266 |
| | $R^2$=0.3375 | F=10.103*** |

* P<.05, ** P<.01, *** P<.001

〈표 8〉 구조적-연결가족(유형Ⅳ)

(N=42)

| | Path Coefficients | t |
|---|---|---|
| 1. 가족내적 긴장 | | |
| 스트레스사건 | 0.474693 | 3.489** |
| 규범적 전이 | 0.303376 | 1.709 |
| | $R^2$=0.4364 | F=15.098*** |
| 2. 부부적응 | | |
| 스트레스사건 | -0.290082 | -1.565 |
| 가족내적 긴장 | -0.294352 | -1.545 |
| 규범적 전이 | 0.170164 | 0.777 |
| | $R^2$=0.2240 | F=3.656 |
| 3. 상황인지력 | | |
| 스트레스사건 | -0.261319 | -1.243 |
| 가족내적 긴장 | 0.332286 | 1.539 |
| 규범적 전이 | 0.427289 | 1.722 |
| | $R^2$=0.1699 | F=2.592 |
| 4. 가족복지 | | |
| 스트레스사건 | 0.277232 | 1.586 |
| 가족내적 긴장 | -0.147545 | -0.841 |
| 규범적 전이 | -0.324520 | -1.616 |
| 부부적응 | 0.255377 | 1.802 |
| 상황인지력 | -0.033739 | -0.268 |
| | $R^2$=0.2203 | F=1.648 |

* P<.05, ** P<.01, *** P<.001

영향을 받았다. 구조-연결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유형에서 가족내 긴장 즉 언제부터 어떤 특정사건은 지정되지 않더라도 은밀히 스며드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이나 가족간의 갈등의 증가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복지감에는 가족내의 긴장이 중요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연-연결가족에서는 가족간의 긴장이 복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부부적응이라는 중재변수가 완충작용(buffer effect)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적-연결가족에서 가족체제자원으로서 부부적응이라는 부부단위의 힘이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을 가진 위기대응자원(Hill의 B요소) 및 적응적인 자원(McCubbin and Patterson의 B요소)으로 작용하였다. 가족체제의 자원으로서의 부부적응은 가족체제 그자체의 특성을 말하며 가족을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위기의 충격에 잘 견딜 수 있게 기능한다. Hansen과 Hill(1964)은 부부적응과 만족스런 위기 회복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적하였고 Burr(1973) 또한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변수로서의 부부적응은 회복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Lavee, McCubbin and Olson, 1987 ; Lavee and Olson, 1991)에서는 상황인지력의 변수가 스트레스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자원으로서의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생활사건이나 전이적인 변화의 영향과 적응의 결과로서의 가족복지에의 영향은 가족의 응집성수준 만으로 또는 적응성수준 만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연적·연결가족에서 변수들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스트레스이론과 Circumplex Model을 정립시키는 한 노력의 일환이고 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이한 가족상호작용형태를 가진 상이한 가족들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각 가족체제유형의 표본수가 균등하게 더 많은 규모의 사례가 표집되어야하며 대구광역시에 제한되었다는데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 순환모델의 곡선성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30-39.

2)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4) 유영주(1995),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 1.

5) 전귀연 · 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 157-173.

6)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159-173.

7)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제의 기능유형-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Angell, R. C.(1936),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New York : Charles Scribner and Sons.

9) Burr, W. 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York : John Wiley and Sons.

10) Hansen, D. A., and Vicky A. J.(1979), Rethinking family stress theory : Definitional aspeds., In Wesley R. Burr, Reuben Hill, F. Ivan Nye, and Ira Reiss(eds.), Contemporary Thories about the Family(Vol.1). New York ; Free Press.

11) Hansen, D. and Hill, R.(1964), Families Under Stres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 Rand McNally.

12) Hansen, Donald. 1965. "Personal and Positional influence in formal groups : Compositions and Theory for research on Family vulnerability to stress." Social Forces 44 : 202-210

13)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 Harper and Row.

14) Lavee, Y., McCubbin, H. I. and Olson, D. H. (198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Transitions on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Ⅳ) : 857-873.

15) Lavee, Y. and Olson, D.(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Ⅲ) : 786-798.

16) Lavee, Yoav(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 Inteq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17) McCubbin, H. I. (1979), Inter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M.F. , 41(2) : 237-244.

18) McCubbin, H. I., and Parterson, J. 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 : 7-37.

19) McCubbin, H. I., Larsen, A. S. and Olson, D. H. (1982). F-COPES : Family Coping Strategies, Family Inventories. St. Paul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20) McCubbin, H. I., Patterson J. M. and Wilson, L. (1981), FILE : St. Paul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21) McCubbin, H.I, Cauble, A.E, & Patterson, J.M (eds) (1982),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Charles Thomas, Springfield, Illinois, x i .

22)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Ⅰ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 3-28.

23) Olson, D. H.(1986), Circumplex Model Vill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Ⅲ. Family Process 25 : 337-351.

24) Olson, D. H.(1989),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Vill :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D. H. Olson, C. S. Russell, & D. H. Sprenkle (eds.), Circumplex Model : Systemat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 : Haworth Press.

25) Olson, D. H., and Barnes, H.(1982), Quality of Life. Family Inventories. St. Paul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26) Olson, D. H., Fournier, D. G. and Druckman, J. M.(1982), ENRICH, Family Inventorier. St. Paul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27) Olson, D. H., Portner, J, and Lavee, Y.(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ssion Scales(FACES Ⅲ). St. Paul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28) Olson, David H., Yoav Lavee, and Hamilton I. McCubbin.(1988), Types of families and families response to str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ocial Srress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 Guilford Press.

29) Pearlin, L. I., Menaghan, E. G, Liberman, M. A. and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 337-356.

30) Rice A.S. and Tuker S.M. (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31) Rubbin, L. B., Women of a Certain Age, N. Y. : Harper and Row.